

새싹편지 6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4년 6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졸업 환송회



<1-1> 제 4대 학생회가 졸업 축하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6월 10일, 우송관 506호에서는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을 위한 졸업 환송회가 열렸다. 환송회에서는 유아교육과 학생회장인 박지원 학생이 사회를 보았고, 축하의 메시지가 담긴 개사를 시작으로 학생회와 1, 2, 3학년 대표들의 축하인사가 이어졌다. 학생회와 학년대

표들은 축하인사를 전하는 도중 선배들의 졸업에 대한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졸업생들을 위해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이 준비한 영상과 함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추억이 듬뿍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길고도 짧았던 10여 분의 동영상이 끝난 후, 추억에 젖어있는 졸업생들에게 한희경 교수님께서 우송대학교 내에서의 기나긴 교사로서의 성장기간을 마무리하고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졸업생들을 향해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을 하시며, “결속력이 강하고 어떠한 학년보다도 모범적이었던 학년이었기에 무엇이든 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라고 연설을 마무리하셨다. 이후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 커팅식을 하였고, 4학년 학생회의 축하인사로 졸업 환송회를 마치며 졸업선물로 에코백을 증정하였다.

통계 특강



<1-2> 2학년 학생들이 특강에 경청하고 있다.

5월 30일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이 우송관 506호에서 아동복지학과 김조용 교수님의 통계 특강을 들었다. 유아수학교육을 배우다 보면 통계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이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웠으므로 이번 특강은 통계의 중요성과 흐름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통계 특강에 앞서, 교수님께서 가족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간단한 소개를 하셨고 이를 통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셔서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강의

를 들을 수 있었다. 단순히 통계라고 하면 날씨가 인구 그래프 등이 떠오르겠지만, 통계학의 범위는 우리 생활 속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과학과 통계에서의 사례는 기상청의 일기예보이고, 사회와 통계에서는 여론조사나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일까지 모두 통계에 속한다. 또한, 추리하여 가설을 세우고 해결점을 도출해내는 과정도 ‘추리통계’이며 ‘기술통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김조용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결과의 대부분은 통계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학생들은 그동안 통계를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생활 어디에서나 통계에 의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계를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으며 통계의 결과가 그 목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우리들의 이야기

교육봉사를 다녀오다

어느덧 1학기가 지나 2학년 A반 학생들의 교육봉사가 마무리되어가고, 2학기에는 2학년 B반 학생들이 교육봉사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교육봉사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교육봉사를 나가게 될 학생들에게 교육봉사를 할 때의 유의점과 몇 가지 팁 등을 알려주고자 올해 앞서 교육봉사를 다녀온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Q. 교육봉사를 할 때의 상호작용 팁이 있다면?

- 김유정 : 남자아이들은 주로 몸을 써서 놀아주면 정말 좋아하고 더 빨리 친해지는 것 같다. 여자아이들은 이야기하거나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면 좋을 것이다.
- 금단비 : 유아에게 교사로서 상호작용할 때에는 유아에게 다 맞춰주고 유아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려 하는 것보다는 유아에게 유치원에서의 규칙을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 김주언 : 나는 유아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최대한 출석부에 있는 사진과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작년에 교육봉사를 가셨던 선배님께서 교육봉사 팁을 알려주셨던 것이라 실천해보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먼저 우리 반 유아의 이름을 다 외워두고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니 아이들이 모두 기뻐하고 신기해하였고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 나혜련 :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 각 반의 분위기도 각각 틀리고 유행하는 것, 좋아하는 놀이가 연령별로, 반별로 조금씩 다르다. 자신이 맡는 반의 특징과 유아들의 관심사항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려 노력한다면, 알찬 교육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교육봉사를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 김예진 :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유치원의 구조나 반의 규칙들을 알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더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 같다.
- 김유정 : 유아들의 성향을 더 빨리 파악해서 유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 또한, 실내, 실외 장소에 간섭받지 않고 어디서나 그 장소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 김도연 : 발달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서 유아들과 더 재밌게 놀아주고 싶다. 또한, 유아들의 놀이 개입 전에 관찰을 더 열심히 해서 유아들의 놀이가 끊기지 않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 금단비 : 다시 교육봉사를 나간다면, 현직 교사분들이 유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하여 보고 싶다.

Q. 이후의 교육봉사를 나갈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김유정 : 교육봉사 준비로 새벽 일찍 일어나거나 봉사 후에 수업을 들을 때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유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피곤함을 모를 정도로 한 것 같다. 유아는 교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진난만한, 순수함과 생기가 가득 도는 유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조금은 난감한 때가 있을지 몰라도 웃음이 절로 나는 값진 시간일 것이다. 처음으로 나가는 현장일지라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배우러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봉사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
- 김도연 : 교육봉사는 유아의 부모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유아만을 보기보다는 전체 아이들을 보아야 한다. 교육봉사를 갈 때를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았던 시간이었기에 최대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은 '무조건 유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였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기에 앞으로 교육봉사를 나가게 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 말해주고 싶다.

지혜나눔

유치원 안전한 환경구성

교사들은 다양한 주의 집중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 유의, 악기 연주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주의 집중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합니다.



A. 부분보고 전체맞추기

‘부분 보고 전체 맞추기’는 그림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전체를 추측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보다는 실제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활동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선정해서 유아들에게 보여준 후, 앞으로 할 활동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도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림이 아니라도 노래나 동화의 일부를 들려주고 유아들이 나머지를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B. 달라진 모습 찾기

‘달라진 모습 찾기’는 유아들에게 교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게 하고 나서 눈을 감도록 시킵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모자나 안경을 쓰거나, 목걸이를 착용하여 다른 모습을 연출합니다. 유아들이 눈을 뜨고 교사의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또는 사진과 같이 그림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C. 패턴 만들기

‘패턴 만들기’는 생활주제와 관련된 그림 자료나 전에 들었던 동화의 그림 자료를 준비하여 패턴이 되도록 용판에 붙입니다. 한 패턴이 2~3번 정도 반복되도록 붙인 후 그 다음에 올 그림이 무엇인지 유아들이 맞추거나 교사가 한 유아를 지목하여 유아가 나와서 직접 다음에 올 그림이 무엇인지 용판에 붙이도록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D. 입 모양보고 알아맞히기

‘입 모양보고 알아맞히기’는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을 하며 조용해집니다. 이때, 교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이야기하여 유아들이 알아맞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연령이 어리거나 조금 산만한 유아가 있을시에 주의집중 효과를 부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에도 모양 찾기, 제목 알아맞히고 노래 부르기, 끝말잇기 등과 같은 다양한 주의 집중 방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의 집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유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송유치원 소식

생활주제

6월의 우송유치원은 만 3세는 동물, 만 4세는 달팽이, 만 5세는 지질박물관을 생활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4-1> 달팽이를 주제로 한 활동자료로 게시판을 꾸몄다.

시립미술관 견학



<4-2>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든 것이다.

우송유치원에서 6월 10일 만 4세 5세 유아들은 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다. 시립미술관을 방문한 후, 사후 활동으로 ‘나무와 나무’ 라는 주제로 유아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해보았다. 이 활동은 세 가지 활동지가 있어 한 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그림으로 완성해보는 창작활동이었다.

미술관을 다녀온 후에는 사후활동으로 유치원 현관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전시도 하였다. 마지막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미술관에 있던 작품들 중 유아가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함께 만들어 전시를 한 것이다.

부모 워크샵

6월 17일 부모 워크샵이 있었다. 오전에는 세라활동으로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부모님들이 활동을 해봄으로써 단순히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우송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알려주는 계기였다. 오후에는 도자기 빚기 활동을 하였다. 이것 또한 유아가 해보았던 활동이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박명옥 김유리

김예슬 손혜원 박지원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강현아

